

[논어한글쓰기_7] 현현선석석

(子	夏	曰)	賢	賢	易	色	,	事	父	母	能	竭	其
力	,	事	君	能	致	其	身	,	與	朋	友	交	言	而	
有	信	.	雖	曰	未	學	,	吾	必	謂	之	學	矣	.	

어	진	이	를	어	질	게	여	기	고	색	을				
좋	아	하	는	마	음	과	바	꿔	서	하	며	,			
부	모	를	섬	길	때	는	힘	을	다	하	며	,			
임	금	을	섬	길	때	는	몸	을	바	치	며	,			
친	구	와	사	귄	때	는	말	을	믿	음	직	하			
게	한	다	면	,	비	록	학	문	을	배	우	지			

알	았	다		하	더	라	도	,		나	는	반	드	시	
그	를		배	운		사	람	이	라		할	것	이	다	.